

# 간호대학생의 플로리시, 비판적 사고성향이 인간중심돌봄 역량에 미치는 영향

배한주, 조금이\*  
계명문화대학교 간호학과

## Influence of Flourish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Han-Ju Bae, Geum-Yi Jo\*  
Department of Nursing, Keimyung Colleg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의 플로리시, 비판적 사고성향, 인간중심돌봄 역량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플로리시, 비판적 사고성향이 인간중심돌봄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9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D시 소재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 150명이었다. 자료분석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 간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인간중심돌봄 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 규명은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간호대학생의 플로리시는  $6.71 \pm 1.00$ 점이었으며,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  $3.74 \pm 0.40$ 점, 인간중심돌봄 역량은 평균  $3.94 \pm 0.49$ 점이었다. 인간중심돌봄 역량은 플로리시( $r=.363, p<.001$ ), 비판적 사고성향( $r=.452, p<.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beta=.34, p<.001$ ), 플로리시( $\beta=.19, p<.013$ ), 전공만족도( $\beta=.14, p=.044$ )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요인들의 설명력은 24.51%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비판적 사고성향과 플로리시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research study was undertaken to determine the impact of nursing students' flourish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Data was collected from September 1, 2023, to September 10, 2023. The study subjects were 150 fourth-year nursing students at a nursing college in D City.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he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IBM SPSS/WIN Ver. 22.0. The mean flourish score was  $6.71 \pm 1.00$ , the mea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core was  $3.74 \pm 0.40$ , and the mean score for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was  $3.94 \pm 0.49$ .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flourish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he factors found to affect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wer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beta=.34, p<.001$ ), flourish ( $\beta=.19, p<.013$ ), and major satisfaction ( $\beta=.14, p=.044$ ),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factors was 24.51%.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an educational program is needed that comprehensively consider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flourish to increase nursing student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Keywords** : Critical Thinking, Flourish, Thinking, Nursing Student, Person-Centered Care, Nursing

이 연구는 2023년도 계명문화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Corresponding Author : Geum-Yi Jo(Keimyung College University)

email: gyjo@kmcu.ac.kr

Received January 5, 2024

Revised January 29, 2024

Accepted March 8, 2024

Published March 31, 2024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명연장으로 치료중심에서 대상자의 개별적 돌봄 위주로 전환되어[1], 환자를 고유성과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써 환자 중심의 질 높은 전문 간호와 개별화되고 차별화된 인간중심돌봄이 강조되어지고 있다[2]. 인간중심돌봄은 대상자의 신념과 가치관을 존중하여 대상자를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 간호에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총체적 돌봄을 말한다[3]. 인간중심돌봄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삶의 질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3] 질병 치유와 관련된 사망률 감소, 낙상사고 감소, 응급상황 감소, 투약오류 감소, 감염을 감소 및 일상생활능력의 손실 발생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환자와 의료인력 간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인간중심돌봄은 상호협력관계를 촉진하게 하여 환자돌봄의 질을 증가시킨다[5]. 따라서 간호사가 되기 전 간호학부 과정에서부터 단계적 교육과정을 통해 인간중심돌봄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6].

간호학과의 경우 진로선택 시 자신의 적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부족한 상태에서 높은 취업률로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7]. 또한 임상실습 시 간호대학생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의 불편한 경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간호사의 행동 등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8].

플로리시란 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펼치고 행복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상태로, 긍정적 정신건강이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9]. 그로 인해 불안, 우울,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 감정과 정서를 완화하는데 플로리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10]. 간호대학생 대상 플로리시 연구에서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을 보였고, 간호전문직관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12]. 특히 인간의 삶은 고통과 행복이 공존할 수 밖에 없는 삶을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한다[13]. 이에 돌봄 제공자의 플로리시 증가는 인간중심돌봄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시 자신 스스로 비판적인 사고 과정에서 요구되는 개인적 특성, 태도, 정서적 성향이다[14]. 이는 급변하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 추론, 종합하고 의료인 간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간호역량으로써 간호사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간호전문성을 발

휘하는 자질이다[15].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이며 간호교육의 핵심요소이다. 간호대학생의 비판적사고 성향의 연구에 따르면 공감, 자기성찰, 대인관계 능력, 인간중심돌봄 역량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17].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간중심간호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인간중심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질로써 명확한 신념과 가치, 공감능력, 창의성, 대인관계 기술[16-18]과 전문적 역량, 직무 몰입을 포함해야 하는 전제조건[19] 등이 연구되었다.

간호대학생이 간호교육 현장에서 적용하고 인간중심돌봄을 제공하게 위해 긍정적 정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플로리시와 비판적 사고성향을 포함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플로리시, 비판적 사고성향, 인간중심돌봄 역량의 정도와 관련 변인 간의 상호관련성을 확인하고, 인간중심돌봄 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환자의 존엄성 및 가치를 존중하는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플로리시, 비판적 사고성향과 인간중심돌봄 역량을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플로리시, 비판적 사고성향, 인간중심돌봄 역량의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플로리시, 비판적 사고 성향, 인간중심돌봄 역량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플로리시, 비판적 사고성향, 인간중심돌봄 역량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 역량에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 2. 본론

### 2.1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플로리시 및 비판적 사고성향이 인간중심돌봄 역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D시 소재 대학의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상자들을 편의 표본추출법에 기반하여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임상실습을 경험한 4학년 간호대학생이며,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4학년간호대학생은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본크기는 선행연구[17]를 바탕으로  $G^*$ power 3.1.9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의수준 ( $\alpha$ )=.05, 검정력( $1-\beta$ )은 0.90, 중간효과크기( $f$ )=0.15, 예측변수 7개(성별, 나이, 종교, 임상실습 만족도, 플로리시, 비판적사고 성향, 인간중심돌봄 역량)를 입력하여 분석에 필요한 대상자 수를 계산한 결과 130명이었다. 탈락률 15%를 고려하여 간호대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150부를 최종 연구분석에 사용하였다.

## 2.3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P01-202308-01-055)을 받은 후 간호대학의 학생회의 허락을 받았다. 자료수집은 2023년 9월 01일부터 2023년 9월 10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전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하는 자에게 설문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외로만 사용하고 자료수집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알렸다. 또한 설문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 2.4 연구 도구

### 2.4.1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 나이, 종교, 임상실습 만족도의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2.4.2 플로리시

본 연구에서 플로리시는 Marsh 등[20]에 의해 개발된 WB-Pro를 Kim과 Hong[13]이 번안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9점 Likert 척도로 낙관적 감정 3문항, 명확한 사고 3문항, 활력 3문항, 친사회 행동 3문항, 유능감 3문항, 자기수용 3문항, 회복 탄력성 3문항, 긍정적 관계 3문항, 정서적 안정 3문항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과 Hong[1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5였다.

### 2.4.3 비판적 사고성향

본 연구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Yoon[21]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하위영역은 지적 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으로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아니다' 1점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Yoon[21]이 개발할 당시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84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7이었다.

### 2.4.4 인간중심돌봄 역량

본 연구에서 인간중심돌봄 역량은 Suhonen 등[22]이 개발하고 Park[23]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였다. 하위영역으로 임상적 상황 7문항, 개인적 삶의 상황 4문항, 의사결정통제 6문항으로 총 17문항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아니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중심돌봄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Suhonen 등[22]이 개발할 당시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9였다.

##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2.0/WIN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플로리시, 비판적 사고성향과 인간중심돌봄 역량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플로리시, 비판적 사고성향과 인간중심돌봄 역량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플로리시, 비판적 사고성향과 인간중심돌봄 역량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간중심돌봄 역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간호학과 4학년 학생으로 성별은 여학생이 126명(84.0%)으로 대부분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3세였다. 종교를 가진 학생은 45명(30%), 없음이 105명(70%)이었으며, 임상실습 만족도는 만족이 101명

(67.3%)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24 (16.0)
	Female	126 (84.0)
Age(year)	M ± SD	23.35 ± 3.12
	≤ 22	93 (62.0)
	≥ 23	57 (38.0)
Religion	Yes	45 (30.0)
	No	105 (70.0)
Satisfaction with the amount of practice	Dissatisfaction	4 (2.7)
	Moderate	45 (30.0)
	Satisfaction	101 (67.3)

### 3.2 플로리시, 비판적 사고성향,과 인간중심돌봄 정도

플로리시, 비판적 사고성향, 인간중심돌봄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플로리시는 9점 만점에 6.71±1.00점이 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낙관적 감정 6.80±1.33점, 명확한 사고 6.63±1.25점, 활력 6.81±1.45점, 친사회 활동 7.26±1.13점, 유능감 6.47±1.21점, 자기수용 6.31±1.34점, 회복탄력성 6.49±1.44점, 긍정적 관계 7.51±1.14점, 정서적 안정 6.27±1.38점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3.74±0.40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지적호기심 3.70±0.62점, 신중성 3.40±0.71점, 자신감 3.77점±0.57점, 체계성 3.50±0.62점, 지적공정성 4.22±0.48점, 건전한 회의 성 3.57±0.71점, 객관성 4.04±0.46점으로 나타났다. 인간중심돌봄 역량은 5점 만점에 전체 점수는 3.94±0.49

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의 임상적 상황이 4.08±0.49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적 삶의 상황이 3.61±0.78점 으로 나타났고, 의사결정통제 4.01±0.51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Flourish,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N=150)

Variables	Mean± SD	Range of scale
Flourish total	6.71 ± 1.00	1-9
Optimistic emotions	6.80 ± 1.33	
Clear thinking	6.63 ± 1.25	
Vitality	6.81 ± 1.45	
Pro-social behavior	7.26 ± 1.13	
Competence	6.47 ± 1.21	
Self-acceptance	6.31 ± 1.34	
Resilience	6.49 ± 1.44	
Positive relationship	7.51 ± 1.14	
Emotional stability	6.27 ± 1.38	1-5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otal	3.74 ± 0.40	
Intellectual eagerness/curiosity	3.70 ± 0.62	
Prudence	3.40 ± 0.71	
Self-confidence	3.77 ± 0.57	
Systematicity	3.50 ± 0.62	
Intellectual fairness	4.22 ± 0.48	
Healthy skepticism	3.57 ± 0.71	
Objectivity	4.04 ± 0.46	
Person-centered care total	3.94 ± 0.49	1-5
Clinical situations	4.08 ± 0.49	
Personal life situations	3.61 ± 0.78	
Decisional control	4.01 ± 0.51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플로리시, 비판적 사고 성향과 인간중심돌봄 역량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플로리시, 무례함과 비

Table 3. Differences in Flourish,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0)

		Flourish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erson-centered care	
		Mean ± SD	t or F(p) Scheffe	Mean ± SD	t or F(p) Scheffe	Mean ± SD	t or F(p) Scheffe
Gender	Male	7.13 ± 0.88	2.25 (.055)	3.87 ± 0.46	1.74 (.083)	3.88 ± 0.64	-0.63 (.526)
	Female	6.63 ± 1.01		3.71 ± 0.38		3.96 ± 0.46	
Age(year)	≤22	6.76 ± 1.01	0.13 (.890)	3.74 ± 0.37	-0.582 (.563)	3.96 ± 0.48	0.36 (.713)
	≥23	6.73 ± 0.89		3.79 ± 0.47		3.96 ± 0.63	
Religion	Yes	6.99 ± 1.10	2.21 (.028)	3.81 ± 0.38	1.45 (.148)	3.97 ± 0.59	0.48 (.629)
	No	6.59 ± 0.94		3.70 ± 0.40		3.93 ± 0.45	
Satisfaction with the amount of practice	Dissatisfaction <sup>a</sup>	6.20 ± 0.79	12.16 (<.068)	3.48 ± 0.14	3.66 (.071)	3.26 ± 0.65 <sup>a</sup>	14.70 (<.001) c>b>a
	Moderate <sup>b</sup>	6.39 ± 0.96		3.63 ± 0.36		3.71 ± 0.44 <sup>b</sup>	
	Satisfaction <sup>c</sup>	6.71 ± 1.00		3.79 ± 0.41		4.08 ± 0.45 <sup>c</sup>	

판적 사고성향 정도는 Table 3과 같다.

플로리시는 종교( $t=2.51, p=.028$ )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종교를 가진 학생이 플로리시 수준이 높았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간중심돌봄 역량에서 임상실습 만족도가 만족할수록 보통, 불만족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4.37, p<.001$ ).

### 3.4 플로리시, 비판적 사고성향과 인간중심돌봄 역량 간의 관계

대상자의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인간중심돌봄 역량은 비판적 사고성향( $r=.452, p<.001$ ), 플로리시( $r=.363, p<.0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플로리시와 ( $r=.428, p<.0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4. Correlations among Flourish,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N=150)

Variables	Flourish $r(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r(p)$	Person-centered care $r(p)$
Flourish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428 ( $<.001$ )	1	
Person-centered care	.363 ( $<.001$ )	.452 ( $<.001$ )	1

### 3.5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인간중심돌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플로리시, 비판적 사고성향과 일반적 특성에 임상실습 만족도를 회귀분석에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공차 한계는 .810~.981로 모두 0.1이상으로 나타났고,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1에서1.22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으며 Durbin Watson은 2.27로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중심돌봄 역량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14.70, p<.001$ ),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 )는 24.5%였다.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 역량에 가장 큰 영향 변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beta=.348, p<.001$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플로리시( $\beta=.199, p=.013$ )와 임상실습 만족도( $\beta=.146, p=.044$ )도 순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고, 플로리시 수준이 높으며,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인간중심돌봄 역량이 높다고 할수 있다(Table 5).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플로리시, 비판적 사고성향이 인간중심돌봄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플로리시는 9점 만점에 6.71점이었고,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12]에서는 5점 만점에 2.18점으로 중간이하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의 점수가 높았으며 대학생 대상의 연구[24]에서 10점 만점에 6.35점과는 유사했다. 이에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하부요인 중 긍정적 관계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았고, 정서적 안정 점수가 가장 낮았다. 긍정적 관계는 타인과 좋은 관계를 경험하여 타인과 의미있는 관계를 맺는 정도이다[13]. 본 연구의 대상자는 졸업을 앞둔 4학년으로써 다양한 임상경험을 통해 자신의 감정 상태와 습관적인 감정패턴 이해를 통해 자신의 긍정적 정서를 촉진하도록 한 것이 긍정적 관계에 대한

Table 5. Regression results for Influence of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N=150)

Categories	B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d. Error	$\beta$	$t(p)$	$R^2$	Adjusted $R^2$	$F(p)$
(Constant)	1.583	.346		4.57 ( $<.001$ )	.261	.245	14.70 ( $<.001$ )
Satisfaction	0.144	.071	.146	2.03(.044)			
Flourish	0.098	.039	.199	2.52(.013)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0.428	.097	.348	4.40 ( $<.001$ )			

† Dummy variables: Satisfaction with the amount of practice (reference=Satisfaction)

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정서적 안정은 차분하거나 침착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학기 시작과 함께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 자료를 수집하여 다른 하위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플로리시는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정적 정서와 이타심이 증가 되어 지속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11]으로 상대방을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한 인간중심돌봄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전략이라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플로리시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선행연구[25]에서 한국과 태국 대학생들의 플로리시 영향 요인에서 종교는 유의한 정적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종교는 개인의 내면적인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플로리시 도달에 도움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74점으로 동일한 도구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 대상[17]의 3.76점 연구결과와 유사 수준이며 1, 2학년을 대상 연구[26]의 연구결과 3.33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간호학과와 특성화 학부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중심학습[17]과 교내실습의 경험과 시뮬레이션 실습 경험과 임상실습의 경험[27] 등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과목의 이수 후에 비판적 사고성향이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영역 중 지적공정성 영역이 4.22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신중성 영역이 3.40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생 대상의 선행연구[17, 28, 29]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간호대학생들은 근거기반 중심의 간호교육의 확대에 자신의 의견과 다른 여러 의견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려는 태도인 지적공정성[30]이 증가되는 긍정적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간호사 국가고시를 대비한 암기 위주의 교육환경이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가 확보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끈기 있게 정확한 결과를 추구하는 태도인 신중성[31]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신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끈기 있게 정확한 결과를 추구하도록 하는 교수법이나 비교과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들의 인간중심돌봄 역량은 5점 만점에 평균 3.94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4학년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 역량을 연구한 선행연구[19, 32]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하위영역별 점수를 보면 임상적 상황이 가장 높았고 개인적 삶의 상황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와 유사하다[17]. 해외 급성기 병원 간

호사를 대상[33]으로 인간중심돌봄 역량 측정 시 중간이상으로 나타났으나, 국내 대학병원 간호사 대상[34]의 인간중심돌봄의 역량은 5점 만점에 2.97점 낮게 나타났다. 간호사들이 처해있는 과중한 업무, 기술 중심의 치료, 시간적 압박, 역할 모델 부재 등은 환자 간호 시 감정이입을 감소시켜 돌봄 행위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35]. 또한 간호실무 방향이 환자와 가족을 위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에 중점을 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간호학부의 교육과정과 간호사 교육의 의학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임상현장에서 투약, 처치와 같은 수행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36]. 또한 코로나 19 이후 문자, 이모티콘을 이용한 의사소통에 익숙한 간호대학생들이 주도적 태도를 가지고 타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과정 내에 대상자와의 면담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교과목을 적용하여 환자의 개인적 삶의 상황을 적절하게 질의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면담방법에 대한 교육과 시뮬레이션,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역할극 등의 교수학습법 등을 활용이 필요하다. 임상상황을 모의 구성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치료적 의사소통에 대해 지식적으로 학습하는 것에서 나아가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대상자에게 맞게 이야기를 듣고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의사소통하는 훈련이 좀 더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간중심돌봄 역량은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인간중심돌봄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간호대학생 대상의 선행연구[32]와 유사하다. 임상실습 및 이론교육을 통해 간호사로서의 지식과 직업적 가치관과 태도를 익히고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 향상되어 인간중심돌봄 역량 수준도 향상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플로리시, 비판적사고 성향은 인간중심돌봄 역량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고 인간중심돌봄 역량 영향요인은 비판적사고 성향, 플로리시, 임상실습 만족도였으며 이중 비판적사고 성향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설명력은 24.5%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상의 근거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하여 임상수행능력이 높아져 간호대학생들의 인간중심돌봄 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비판적 사고성향 함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비판적 사고는 단기간의 교육보다는 지속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해 함양되므로,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해서는 창의적 교수법 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에 대한 관

심부족, 교육자의 교육성향 같은 교수자적 요인까지 고려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플로리시가 높을수록 인간중심돌봄 역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대상의 선행연구에서[35] 플로리시는 간호사의 소진 및 스트레스와도 유의한 관계를 보였고, 교사대상의 연구[36]에서도 플로리시는 역할갈등 및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플로리시는 현 상태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계발하고, 미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37]. 급변하는 임상 현장에서 미래의 간호사로서 자신을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플로리시 증진을 통해 인간중심돌봄 역량이 도움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비판적 사고성향과 플로리시가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 역량의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대학생은 임상 상황에서 비판적 사고를 통해 상황으로부터 정보를 모아 필요한 결론을 도출하는 추론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21]. 이때 플로리시가 높을 경우 역할갈등,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간호학적 배경 지식과 공감의 통합되고 추론과 비판적 분석이 합쳐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판적 사고와 플로리시가 함께 작동하여 이루어지는 간호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인간중심돌봄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 역량을 높이기 위해 비판적 사고성향과 플로리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간중심돌봄 역량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과 플로리시,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이었다. 이들 변수는 인간중심돌봄 역량을 24.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판적 사고성향, 플로리시와 임상실습 만족도가 인간중심돌봄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간호학과 4학년을 편의표집하여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표할 수 없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 있어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인간중심돌봄 역량과 플로리시간의 간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추후 이에 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1] A. Kitson, A. Marshall, K. Bassett & K. Zeitz, What are the Core Elements of Patient-Centered Care A Narrative Review and Synthesis of the Literature from Health Policy, *Medicine and Nursing, Journal of Advance dNursing*, Vol. 69, No.1, pp.4-15, 2012  
DOI: <https://doi.org/10.1111/j.1365-2648.2012.06064.x>
- [2] M. J. Park, E. E. Suh, J. M. Lee, Nursing staffs' experiences of managing medical needs of the elderly in Korean long-term care facilitie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5, No.4, pp. 409-421, 2013.  
DOI: <http://dx.doi.org/10.7475/kjan.2013.25.4.409>
- [3] S. Morgan, L. H. Yoder, A concept analysis of person-centered care, *Journal of Holistic Nursing*, Vol. 30, No.1, pp.6-15, 2012.  
DOI: <https://dx.doi.org/10.1177/0898010111412189>
- [4] D. Avanecean, D. Calliste, T. Contreras, Y. Lim, A. Fitzpatrick, Effectiveness of patient-centered interventions on falls in the acute care setting: a quantitative systematic review protocol, *JBI Evidence Synthesis*, Vol. 15, No. 1, pp. 55-65, 2017.  
<https://pubmed.ncbi.nlm.nih.gov/28085727/>
- [5] T. S. Alharbi, L. E. Olsson, I. Ekman, E. Carlström,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the outcome of hospital car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person-centred care,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42, No. 1, pp. 104-110, 2014.  
DOI: <https://doi.org/10.1177/14034948135005>
- [6] Institute of Medicine. Health professions education: A bridge to quality. Washington,DC: National Academies Press: 2003.
- [7] K. E. Lee, I. S. Seo, The effects of calling, nurse's image,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efficacy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8, Vol. 1, pp. 37-47, 2022.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22.28.1.37>
- [8] M. S. Kim, Development and effects of as sertiveness training applying Dongsasub training for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6, Vol. 4, pp: 490-500, 2016.  
DOI: <https://doi.org/10.4040/jkan.2016.46.4.490>
- [9] M. E. Seligman,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New York: Simon and Schuster, pp. 368, 2012.
- [10] H. Y. Jin, *The influence of perceived COVID-19 stress on flourish among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s*

- of mental health and moderating effects of stres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28, 2021.
- [11] J. H. Heo, W. J.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nunchi sca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4, No. 6, pp. 3537-3555, 2013.  
DOI: <https://doi.org/10.15703/kjc.14.6.201312.3537>
- [12] H. J. Bea, G. Y. Jo,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Flourish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4, No. 5, pp. 490-498, 2023.  
DOI: <https://doi.org/10.5762/KAIS.2023.24.5.490>
- [13] H. J. Kim, H. H. Hong, A Study on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Multidimensional Flourish Scal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3, No. 1, pp. 423-443, 2023.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3.23.1.423>
- [14] C. A. Giancarlo, P. A. Facione, A look across four years at the disposition toward critical thinking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50, No. 1, pp. 29-55, 2001.  
<https://www.jstor.org/stable/27797861>
- [15] A. N. Park, K. H. Chung, W. G. Kim,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2, No. 1, pp. 1-10, 2016.  
DOI: <https://doi.org/10.1111/jkana.2016.22.1.1>
- [16] E. H. Park, J. S. Choi, Attributes associated with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Vol.43, No. 5, pp. 511-519, 2021.  
DOI: <https://doi.org/10.1002/nur.22062>
- [17] Y. Y. Do, J. Y. Ahn, H. K. Chang,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toward Empathy, Self-Compassion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3, No. 1, pp. 98-107, 2022.  
DOI: <https://doi.org/10.5762/KAIS.2022.23.1.98>
- [18] J. Y. Park, C. H. Woo,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8, No. 1, pp. 48-56, 2022.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22.28.1.48>
- [19] E. Park, J. Choi, Attributes associated with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e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Vol. 43, No. 5, pp. 511-519, 2020.  
DOI: <https://doi.org/10.1002/nur.22062>
- [20] H. W. Marsh, F. A. Huppert, J. N. Donald, M. S. Horwood, B. K. Sahdra, The well-being profile (WB-Pro): Creating a theoretically based multidimensional measure of well-being to advance theory,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Psychological Assessment*, Vol. 32, No. 3, pp. 294-313, 2020.  
DOI: <https://doi.org/10.1037/pas0000787>
- [21] J. Yoon,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Doctor's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2004.
- [22] R. Suhonen, M. L. Gustafsson, J. Katajisto, M. Välimäki, H. Leino-Kilpi, Individualized care scale-nurse version: A Finnish validation study, *Journal of evaluation in clinical practice*, Vol. 16, No. 1, pp. 145-154, 2010.  
DOI: <https://doi.org/10.1111/j.1365-2753.2009.01168.x>
- [23] E. H. Park, *Factor Related to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2018.
- [24] H. M. Kang, S. H. Ha, H. A. Seo, The Effects of a Flourish Program on the Flourishing and Positive Automatic Thought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Society of Children's Literature & Education*, Vol. 19, No. 2, pp. 249-269, 2018.  
<https://www-dbpia-co-kr.kims.kmu.ac.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39422>
- [25] D. H. Ahn, Enhancing Flourish: The Role of Religiosity and Happin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nd Thailand, *outheast Asia Journal*, Vol. 25, No. 1 pp. 181-210, 2015.  
DOI: <https://doi.org/10.21485/hufsea.2015.25.1.006>
- [26] H. W. Kwak,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solving ability and frustration tolerance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8, pp. 233-242, 2018.  
DOI: <https://doi.org/10.14400/JDC.2018.16.8.233>
- [27] S. H. Kim, I. S. Park, Effects of simulation practice by applying problem based learning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solving process and self-confidence of nursing process in nursing students. *J Korea Soc Simul Nurs*, Vol. 3, No. 2, pp.1-11, 2015.
- [28] M. H. Lim, Effects of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 8, pp. 560-568,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8.560>
- [29] Y. J. Ju,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Resilience in the Relation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3, No. 16, pp. 841-853, 2023.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3.23.16.841>
- [30] H. S. Hyun, Y.O. Kim, The Effect of Moral Sensitiv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the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2, No. 18, pp. 195-204, 2022.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2.22.18.195>



- [31] J. Yoon,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nursing students-Focusing on a school applying integrated nursing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4, No. 2, pp. 159-166, 2008.
- [32] M. Kim,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person-centered care, *Medicina*, Vol. 56, No. 8, pp. 414, 2020.  
DOI: <https://doi.org/10.3390/medicina56080414>
- [33] E. Papastavrou, R. Acaroglu, M. Sendir, A. Berg,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ized care and the practice environment: an internatio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 52, No.1, pp. 121-133, 2015.  
DOI: <https://doi.org/10.1016/j.ijnurstu.2014.05.008>
- [34] H. Y. Kim, M. S. Sun, Effects of Empathy for the Elderly, the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Person-centered Care on Geriatric Nursing Practice Among University Hospital Nurses, *J Korean Acad Soc Home Care Nurs*, Vol. 30, No.1, pp. 56-68, 2023.  
DOI: <https://doi.org/10.22705/jkashcn.2023.30.1.59>
- [35] Y. M. Cho, The Influence of Nursing Character, Flourish and Job Stress on Burnout among Clinical Nurses, *The Journal of Social Convergence Studies*, Vol. 7, No. 4, pp. 1-11, 2023.  
DOI: <https://doi.org/10.37181/JSCS.2023.7.4.001>
- [36] D. H. Kim, K. Y. Ji, H. J. Kim, Mediating Effect of Flourish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Conflict and Burnout of School Counselo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11, pp. 499-509, 2021.  
DOI: <https://doi.org/10.14400/JDC.2021.19.11.499>
- [37] Y. Y. Park, Y. J. Jung, The Effect of Parents' and Academic Advisers' Autonomy Support Perceived by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on Career Adaptability and Flourishing, *Korean Association for Children's Media & Education*, Vol. 21, No. 4, pp. 25-46, 2022.  
DOI: <https://doi.org/10.21183/kjcm.2022.12.21.4.25>

조 금 이(Geum-Yi Jo)

[정회원]



- 2008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정신전문석사)
- 2011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0년 3월 ~ 2016년 2월 : 대구 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계명문화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정신간호, 행복, 자아존중감

배 한 주(Han-Ju Bae)

[정회원]



- 2013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임상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9년 8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 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9년 3월 ~ 2020년 2월 : 영남 이공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20년 3월 ~ 현재 : 계명문화대 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MBSR(마음챙김 명상), 플로리시